

우도마을신문 2023년 봄호

발행 우도마을신문 | 창간 2017년 12월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하우목길 9-1

달그리안



봄소풍(1985년) / 사진 황철보(전 우도중 교사)

소풍 가는 길

여상훈
(부산시/비양동 출신)

비야! 제발 오지 마라! 제발 오지 마라!

선생님의 호각 소리에 맞춰 소년과 전교생은 우도봉으로 출발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사통 옆 샛길에 접어든다. 저학년 아우들이 동요를 부르자 돌담길 옆 유채꽃들이 환하게 웃는다. 고학년 선배들이 유행가를 부르자 지평선까지 펼쳐진 청보리가 넘실 넘실 출렁출렁 춤을 춘다. 드디어 넓은 우도봉에 도착한다. 푸른 잔디밭에 둥글게 둘러앉아 꼬리잡기,

수건돌리기, 장기자랑을 하며 왁자하게 웃는다. 우도봉은 우정과 추억을 만드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어간다.

벌써 40년이 다된 이야기다. 이제 소년은 또 다른 꿈을 꾀다. 우도봉에 올라 같이 소풍갔던 옛친구들과 술잔 기울이며 추억을 나누고픈 꿈... 소년의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기를...

그땐 경허명 살아수다

“무사 그땐 경 재미나게 놀아져신고”



알우못개 여인들 1958년 / 구술·사진 고춘자(비양동) 제공

“난 인자네 집에 놀래 잘 가서. 혼디 불 솜으멍 밥허고, 친구들허고 좁쌀 가져 당 오메기떡 만들엉 먹고, 밤에 몰래 미역 조물래 땡기고, 무사 그땐 경 재미나게 놀아져신고. 이젠 저세상에 간 벗들도 있고... 그런 세상은 다시 오지 않을 테주.”

정자, 순자, 해순, 옥녀, 화자, 난춘, 금란, 영자, 인자, 춘자, 낭랑 18세 알우못개(하우목동) 여인들이다. 먹을 게 귀하고 삶이 궁핍했던 시절, 배는 고파도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 보면 하루가 짧았다. 어명, 아방이 잠시 집을 비우면 그 틈을 타 몰래 고팡(광)에 들어가 티가 나지 않을 만큼 좁쌀을 한 움큼 집어 들어 재빨리 친구 집으로 달려간다. 여럿이 조금씩 모인 좁쌀을 절구통에 빵아 오메기떡 잔치를 벌인다.

“인자야, 불 솜암나.”
 “다땡져. 호ffel만 이시라 춘자야.”
 “옥녀가 오메기떡 행 먹겐.”
 “기이.”

입가엔 웃음이 가득하다.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데도 매번 신이 난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은 세상 무엇보다도 바꾸고 싶지 않았다. 밤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미역 따라 가는 일도 두근두근 설레고 긴장되지만 마냥 즐거웠다.

• 편집부

우도가치

천진리, 영일동 113주년 포제(酺祭) 봉행



사진 좌/천진리 마을포제(2021), 우/ 영일동 마을 포제(2023)

정월 초, 우도의 유교식 마을제인 포제가 두 마을회 포켓동산에서 치러졌다. 천진리마을회(이장 고광환)와 영일동마을회(동장 김중훈)는 3박 4일 정성을 드리고, 지난 2월 7일 자정을 기해 각 마을의 포켓동산

에서 제를 지냈다. 올해로 113주년을 맞이한 마을포제는 일제 강점기까지 단일리(연평리) 시절 충훈묘지(중앙동) 인근 포켓동산에서 12개 자연마을에서 제관을 선출하여 포제를 지냈으나 해방이후 마을단위

로 분산되어 치러왔다. 그마저 새마을 운동으로 대부분 사라지고 지금에 이르러 천진리와 영일동 마을회만 이어오고 있다.

• 강계현 편집장

초창기 우도 도항선 사무장, 동천진동 김정희 어르신



김정희어른(1937년생)은 초기 우도 도항선 자연호의 사무장을 칠팔 년 동안 하며 도항선 살림을 도맡아 해 온 분이다. 도항선 사무장 자리는 능력도 있어야겠지만 신뢰도 필요한 자리다. 학력이라고는 인가되지 않은 중학교 과정인 고등공민학교를 나온 것이 모두인 그가 도항선 사무장이라는 중직을 오랜 기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에서 능력뿐 아니라 신뢰를 모두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가능해 본다.

2년 전 아내가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지만 자식들이 혼자 사는 아버지를 위해 식사와 청소를 도와주는 분을 불러주어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하고 유쾌하게 노년을 살아가고 있다.

군에 갔다 온 것 외에 우도를 벗어난 일이 없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일본군 부대장이 집에 숙박했다. 그때 일본말을 조금 배웠다. 2학년 올라갈 때 해방이 되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 뒤 창고에 있던 고등공민학교에서 공부했다. 인가가 안 난 학교라 3학년까지 다녔지만 졸업장이 없다.

19세에 결혼하고 22세 때 군에 갔다. 해병대 78기다. '그 당시 해병대는 모든 게 공짜였어. 밖에 나오면 차도 버스도 돈 달라 안 해. 줄 것도 없고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생애 이런 때가 또 없다고 생각해서 휴가로 외박 나오면 우리나라 섬을 다 구경했어. 안 갔다 온 데가 없어'

소섬(우도)에서 태어나 군에 갔다 온 것 외에 우도를 벗어난 일이 없다. 아버지가 환갑 전에 돌아가고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마음에 떠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사형제 중 셋째 임에도 큰 형님과 둘째 형님은 육지에 나가 살았고 동생은 아직 어렸고 집을 지키느라 나가는 건 꿈도 못 꿔다.

소를 해서 돈을 벌어

'결혼은 했는데 먹을 쌀이 없어. 옛날에는 미역 할 때 선도금을 주는 데가 있었어. 선도금을 타가지고 몽땅 쌀을 사놔어. 그것만 해도 걱정이 없었지.'

넙미역도 건지고 뜬뚝도 하고 하다가 몇 년 안 해서 소를 한 마리 샀다. 소를 키워서 돈을 엄청나게 불렀다. 2만원에 샀으면 한 3천원은 남기는데 그 돈도 무시 못 했다. '한 번에 새끼 벨 수 있는 거 여섯 마리 키워어. 재수가 좋으려니 키우는 여섯 마리 중에 다섯 마리나 더 낳았어. 한 마리에 200만원 하는 소를 다섯 마리나. 그게 바로 운이지'

자연호의 사무장을 하다.

'제대하고 한 몇 년 있다가 했으니. 삼십대 중반 쯤부터..... 그 당시도 사무장은 아무나 안 준단 말이야. 자연호 사무장 하면서도 소를 키웠지. 사무장은 배를 타고 오가며 도선비를 받아야 되고 계산만 해 놓고 한 달 동안 돈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라 돈 관리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고. 소에서 돈이 많이 나오는데 뭐 굶이 힘든 사무장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 그만두려 했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분들이 봐 주지를 안 해요. 1년만 더, 1년만 더 하다 칠팔년을 하게 되었지.'

'자연호는 목선이라 한 대로 운영했는데, 옛날에는 꼭 법칙대로 안 했으니까. 한 번에 한 백 명은 탔어. 그 당시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나를 다 알지. 배 시간은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랐는데 아침에 8시 30분이나 9시에 우도에서 성산포로 나가면 12시에 성산에서 우도로 들어오고, 오후 2시에 나가면 오후 4시에 들어오고.'

시간이 비는 때에는 근처 동남에 많이 다녔다. 배에 타고 오를 때 도항선비 받으니, 돈 관리를 해야 하니까 잔돈을 바꾸기 위해 동남에 자주 다녔다. '옛날에 법선도 왕복으로 다녀왔다고 하긴 하는데, 나는 목선 자연호부터 협성호까지 탔어. 협성호는 자연호가 낡아 가니까 대체하는 걸로 또 해온 배야.' 자연호는 개인 몇 사람이 주인이었다. '한 번은 임봉순 씨가 배를 하고수동 누구에게 팔아 놔거든 그때도 사무장 해 달라고 해서 사무는 내가 다 했지. 선장 기관장, 사무장, 간판부에 둘, 해서 총 다섯이 다녔어'

자연호 다음엔 협성호 라고 있었다. 협성호는 90년대. 연봉호는 배를 수리하러 갈 때 대체하기 위해 스페어로 있었던 배다. 연봉호 할 때는 사무장도 하고 선장도 하고 두 가지 일을 했다. 그 후 얼마 안 돼서 강권일 씨가 철선으로 지어와서 철선으로 운항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람은 안 신고 화물만 실었는데 나중엔 사람도 신고 화물도 신고 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강권일씨가 철선으로 지어와 임봉순과 경쟁하다가 90년에 강영일 씨에게 판 것을 임봉순 씨가 다시 인수했다.

나 만큼 돈을 많이 만져본 사람 드물어

'그 큰돈을 무얼 믿고 그렇게 맡겼나 몰라.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

그때는 온 우도 주민들의 우미 값 마늘 값을 단위 농협이나 수협에서 마대에 담아 배에 싣었다. 전달했다. 도항선은 바다를 운항하는 20분간 돈을 인수하고 인계하는 은행역할 까지 겸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토바이 운전을 할 수 있어 이동이 자유롭고 어릴 적 함께 놀던 친구 집에도 놀러 가고 친구들에게 술 한잔 사 주는 돈을 아끼지 않으며 노년을 즐기며 여유롭게 살고 있다. 살아온 세월을 더듬어 보면 살아오면서 큰 고난 없이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되었다며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가만히 들



여다보면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행동하며 유쾌하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1년 동안 아픈 아내를 돌보며 간호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상황을 받아들이며 아내와 함께한 마지막 순간들을 성심을 다해 간호하고 바라지를 했기에 그 시간은 그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추억의 시간이었고 후회 없는 시간이었다. '카르페디엠' 현실을 온전히 살라는 말처럼 그는 그에게 오는 모든 순간을 복되게 하는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온 듯하다.

바다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톳을 함께 건져 올려요.



4월 톳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일주일 동안 이어진다. 4월 7일은 하우목동에 톳 공동작업하는 날이다. 비와 굶은 날씨로 톳 작업이 보름 정도 늦어졌다. 썰물에 맞춰 동네 사람들이 장화에 호미와 마대를 챙기고 바다로 모여든다. 작업할 구역을 3개로 나눈다. 여자 삼촌이 호미로 톳을 캐서 마대에 담으면, 젊은 청년은 마대를 어깨에 둘러메고 경운기에 지어 나른

다. 경운기에 톳이 가득 차면 남자삼촌은 포구 광장으로 실어 나른다. 하늬바람에 잘 마르게 톳을 바다에 너는 작업은 나이 많은 동네 어르신들의 몫이다. 남, 녀 그리고 청년과 어른 구분 없이 한 집에 한 사람은 톳 작업에 동참한다.

올해는 예년보다 톳 작업이 늦어졌음에도 톳이 곱

고 실하다. 돈 들이지 않고 자연적으로 난 톳은 바다가 주는 귀한 봄 선물이다. 톳과 함께 미역도 자라고 우미도 바다에서 꽃을 피운다. 김양순(67세), 서광리 어촌계장은 “공동으로 하는 톳 작업이 힘들지만, 이 공동체 작업을 통해 일 년에 한 번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고향화로 젊은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톳 마중이 어려워 마을 사람들이 언제까지 함께 작업 할 수 있는지 함께 걱정한다. 마지막으로 톳으로 만든 음식을 개발해서 학교급식 같은 단체에 소비 함으로써, 우리 바다에서 나는 좋은 자연산 톳이 그대로 썩어 나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한마디 덧붙인다. 나는 오늘 하우목동 장통알 바다에서 보석처럼 반짝이는 귀한 보물을 만났다.

• 강윤희 마을기자

●●● 해녀를 기록하다-13

잠수 팔십명 중 물질 일등, 고옥녀 해녀



- 이름 : 고옥녀 해녀
- 84세(1940년생)
- 하우목동에서 태어나 22살에 결혼. 현재 영일동에 거주
- 여덟살부터 친구들과 물질 시작해서 열다섯부터는 어멍들과 같이 함.
- 열일곱에 육지물질 시작. 거제도, 부산, 일본 등으로 다님

고옥녀해녀는 '소섬안에서 일등'이라는 어머니를 닮아 육지물질에서 잠수 팔십명 중 일등 할 정도로 힘이 있고 손이 빨랐다. 어린 동생들 돌보느라 학교를 다니지는 못했지만 야학소에 다니며 급장을 도맡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사리분별이 빠르고 유쾌하여 물질이든 마을 일이든 거침이 없고 자신만만했다.

여덟 살에 벗들과 해올락 해올락 물질 했주. 그땐 하루방들 보초 설 때난, 정월 이월 삼월까지 밤에 우미도 독질 하래 강, 매다 말리고. 추운거 생각해서. 그땐 아무것도 모르고 하영 해 온 사람만 먹던 산다 생각하고 경 살았서게. 이디 소섬 아이들은 열다섯 되면 어멍들과 막 같이 해여. 물질 잘하는 아이들은, 들면 전북도 특하게 틀고.

열 댓살 되던 때 어멍이 딸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보려고 너른지 데려 강 '숨벼 보라' 허더라고. 그 물은 자야만 물질하는 데라. 물이 창창 갈 때라 물창에 강 빙빙 돌아 고동 하나쯤 주워 올라 오난 '이젠 동산에 가서 숨벼 보라' 그디 강 고동을 몇 개 잡아오난, '침작거리지 말앙 숨벼라 숨벼라' 허더라고. 계난 그때부터 친구들과 벗 허멍 어멍네 너른지 가면 쫓아 댕겼주게. '얼마 해 와서?' 허난 나 전북 하나 떼고 고동도 우리 바당에서 보단 두곱 세곱 잡고 허난 '계도 허는 척은 허크라' 경 허더라고.

사라호 태풍볼 때 거제도에 배 하나에 이십 명씩 네척이니 잠수 팔십 명에 나가 물질을 일등으로 했어. 그때가 나 열아홉이여. 우미고 매역이고. 그런걸 하영 해 놓으난. 그때 전주가 나 돈을 얼마 주더라고. 큰 수건 하고 마후라 닳은 거 하고 봤어. 갠디 팔월 명절 사라호 태풍볼어, 그 섬을 짝 쓸어 버려. 아무것도 없이. 30가구 오곳 다 불려버려. 나 팔십까지 살아도 그 태풍이 제일 강했어. 명절 뒷날은 전주들이 돈 계산 해주민 돈을 다 잠수들 사는 곳마다 재여 있을 때라. 지붕 해삭해삭 갈라진데서 꿩이 보여. 돈 담은 껌을 심어야 겠다 해난 '아이고 안되겠다 우리가 힐 예산을 해야주, 삼촌 우리 힐 예산을 해야 되쿠다.' '아이고 조캐야 절대 안된다. 아이고 옥녀야 너가 없으면 무시거 힐 사람도 없고 너가 이 시민 배가 다 웃음이 터지는데 니 죽어 불민 안된다. 너네 허당 목숨 죽어 불민 돈이 무슨 필요가 이시니' 경행 잠수들이 침착했 살았주.

성판목이여 허민 거제도 간 사람은 이마에 팍 잘잘 혈치명 안 댕기는 사람이 였나. 내(노) 하나에 둘이서 돌아져 그디를 넘어오젠 허민 '힘든 사람들 호꿈 앓으라. 물 안가는 델랑 할망들 저시라.' 경허민 첨엔 별 시상 닳아. 경헌디. 저 올때목 있져이 '옥녀야 옥녀야 준비하라, 준비하라.' 무사 정 험신고 해신디 함마 죽어 지켜라. 그 내 젓으며 '쳐라 배겨라. 옥녀야 노래하라. 다 돌아왔져'

그땐 열아홉 스물이난 날지 안했샤. 빨름도 하고. 나가 영 살아 보난 얘기 낱기 시작하난 진기 빠져네 그추룩헌 기분이 없어라게.

시월 초 여흥날은 처음으로 물에 들어가는 한 물날이라. 아침 아홉시에 두물날이난 게 그때 이바당에서 희여 부난, 저 바깥디 물이 센다게. 물이 좋안 가당 하늬바람이 갑자기 불어 물이 원물로 돌아서난, 하도 꼬사 노난 사람이 뱅뱅뱅뱅 몰아져 배로 몇 사람 찾아오고 나만 떨어져난, 어디가도 힘이 재난에 헤여 난텐 내 부난, 저기 성산포 일출봉 드레 꼬서 강, 다시 이쪽으로 희연 하늘이 개말이 오난, 원물로 등대 알 검물레로 들어오는 물이 있어. 그 물로 히여네 그 밤에 등대 알 달그려진 알 히여올 땐이 죽어지카 부덴 해져라 무서워. 밤 열두시난 게 혼자만. 등대 앞에는 막 태풍이 불어도 반반 하느네. 경행 히여 오르랜 허난 다이브가 하나 있어. 그 밤에 도둑질 하러 온 거주게. 나호꿈 살려 도랜 해 가난 심으러 온줄 알앙 오곳 줄 걷어 달아나 부런. 밤 열두시 넘도록 희노랜 허난 우리 아들들이 몰알로 댕기는 배 잡아그네. 서너 오누이가 들어 왔더라고. 콧구멍 맞은 편 절벽에 가네 막 어머니 어머니 불르는 소리에 후라쉬 여섯 개 짝 비추난 나신디까지 비춰오더라고. 경허난 막 동건아 경미야 나살려도라 허멍 막 했주. 사람을 보난, 힘이 빠져 몰알로 쏙쏙 내려가 버려라게 소라도 소박 한망아리한 거 태왁이 몰알로 깔리는 것 톡 끌러당 전부다 비워 말젠 절벽으로 히여 나왔어.

살아온 삶이 매순간 생명력이 있어 그런지 입담도 좋고 총기도 좋아 풀어내는 이야기기 살아 있는 듯 생생하다. 제라한 우도대상군의 팔십 평생 이야기를 작은 지면에 다 풀어 낼 수 없어 안타까울뿐이다. 물질한 기록 사라호 태풍에 1등한 기록, 다년간의 부녀회장과 반장한 기록들이 있어 2001년 복제주군수로부터 우수잠수상을 받았다.

• 송희정 마을기자

●●● 들판을 일구는 사람들

우도 들판을 일구는 청년 농부를 만나다

섬 속의 섬 우도는 반농반어의 섬으로 주민들은 밭농사와 바다 일을 겸하면서 살아왔다. 최근 들어 유명 관광지로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서 점차 관광서비스업 비율이 높아졌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은 노령화와 더불어 그 수가 현저히 줄고 있다. 그렇지만 관광산업 활성화로 여타 다른 섬에 비해 젊은 층이 적지 않게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업종에 종사한다. 이러한 여건에도 농업에 뜻을 두고 우도를 닮은 소처럼 묵묵히 우도 들판을 일구는 청년들이 있다.

가족의 생계를 짊어준 어깨에 짊어진 고영우 농부

고영우 농부는 1987년 우도면 서광리 중앙동에서 3남 중 막내로 태어났다. 작은형과는 10년 터울로 세상에 나오기까지 힘든 사정이 있었다. 아버지가 월남전에서 고엽제 피해를 입어 큰형과 작은형이 고엽제 후유 장애를 앓고 있었다.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하다 어머니의 굳은 의지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고영우 농부는 어려서부터 밭일을 도우면서 아버지가 차린 공업사에서 연장과 기계 만지는 일을 따라 하면서 친숙해졌다. 또한, 아버지의 권유로 공고 자동차 학과를 진학했고, 대학에서는 에너지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이다. 그래서 잡다한 기계 고장은 혼자서 똑딱 고친다.

십여 년 전 아버지는 간암 말기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마저 암 투병과 허리병으로 농사일과 해녀 작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제주 시내에서 몸담았던 직장을 정리하여 농업에 뜻을 두고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기 위해 과감하게 고향으

로 돌아왔다. 본인은 아직까지 건강에 이상이 없지만 혹여 후대에 고엽제 후유 장애가 발병할 수도 있어 굳은 마음으로 결혼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가족의 삶으로 옮겨왔다.

작년에 귀향하고서 시작한 첫 땅콩 농사에서 1,000kg을 수확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뤘고, 올해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농사용 창고를 짓고 있다. 간간이 봄 농사 준비로 제초와 경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날이 높아지는 인건비와 비료값 상승, 이상 기후와 내성화된 잦은 병충해로 농약값이 상승하는 등 점점 농업생산 비용이 늘어나면서 모든 농사 체계를 관행 영농에서 기계화 영농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짜고 있다. 추후 창고 시설이 완공되면 기본적인 농사 설비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농업법인 설립을 위해 단계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고영우 농부는 현재의 우도 농업이 땅콩 농사에



큰형과 함께 밭에 있는 돌을 소형 포크레인으로 골라내고 있다

편중되어 있어 우려를 나타냈고, 성황을 이뤘던 마늘과 쪽파 농사는 생산단가 상승으로 농사를 포기한 농가도 많아 시급히 대체 작목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개별 농가들이 겪고 있는 생산과 판로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고, 농사용 장비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 사업도 별외 소규모 기업 영농의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가들의 폐쇄적인 사고로 소통이 부족한 점, 농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관심 부족 등 앞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요리사가 꿈이었던 정요한 농부

정요한 농부는 1992년 우도면 서광리 하우목동에서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주말이면 부모님을 돕기 위해 밭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밭일을 터득했다. 부모가 기대했던 공부에는 뜻이 전혀 없었다. 그는 요리사가 꿈이었고 관련 대학까지 진학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했던 바와는 달랐다. 동기들은 이미 고등학교 과정에서 요리사 자격증을 따서 대학에 진학하다 보니 학업 과정을 함께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어 쓰디쓴 소주만 마셨다. 급기야 대학 과정을 포기하고 군대에 입대할 나이가 되어 해병대를 지원하여 군 복무를 마치고 육지에서 꿈을 펼치기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서 커피업에 종사하는데 느닷없이 고향에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가 다쳐서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고...

부모님은 축산업과 밭일을 겸하였고, 어머니는 해녀 일까지 하고 있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와 소를 돌보고 밭일도

도왔다. 어느 정도 집안일을 갈무리하고 상경을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간호해야 했고, 그 많은 집안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정요한 농부는 가업을 책임져야겠다고 마음먹고 우도에 정착하여 농사짓기로 결심했다.

병석에 누운 아버지는 아들에게 “요한아, 소를 키우라.”라고 당부했지만 어릴 적부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소 밥 주고, 건강 상태 살피고, 거름 내고, 소먹이 준비하는 바쁜 아버지 모습을 봐왔던 터라 가축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일찍이 알았기에 “난 경 못 허쿠다.” 단호하게 농사일에만 전념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정요한 농부는 현재 본인 몫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어머니와 상의하며 부딪힘 없이 농사를 전수 받으며 작년에는 땅콩 4천 평, 올해는 두 배인 8천 평을 심는다. 쪽파는 작년에 파종한 3천 평을 올봄에 수확한다. 땅콩 농사는 어느 정도 기계화가



올봄 땅콩 농사를 짓기 위해 휴경했던 밭을 갈고 있다

갖춰져 있지만 쪽파 농사는 비싼 인건비와 들쭉날쭉한 판매 가격, 잦은 병충해로 인한 농약값 상승으로 올해를 끝으로 쪽파 농사는 접기로 어머니와 약속했다.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농사짓기 위해 틈이 나면 밖으로 나가 다른 농업인들과 만나 농사 정보와 경험을 배우며 필요에 따라 여러 강의도 들을 계획이다. 또한, 지난 농사 과정에서 개별 영농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농업 법인 설립에 대한 고민이 이어 나가 자신의 농업 기반을 차곡차곡 세워나갈 계획이다.

●●● 복지

우도로 201 - 우도살롱 요양원

• 한수민(우도 요양원 살롱)

안녕하세요? 우도살롱 요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한수민입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울산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제주가 고향인 어머니를 몇 년 전 간암으로 여의고 험한 마음에 무작정 짐을 싸서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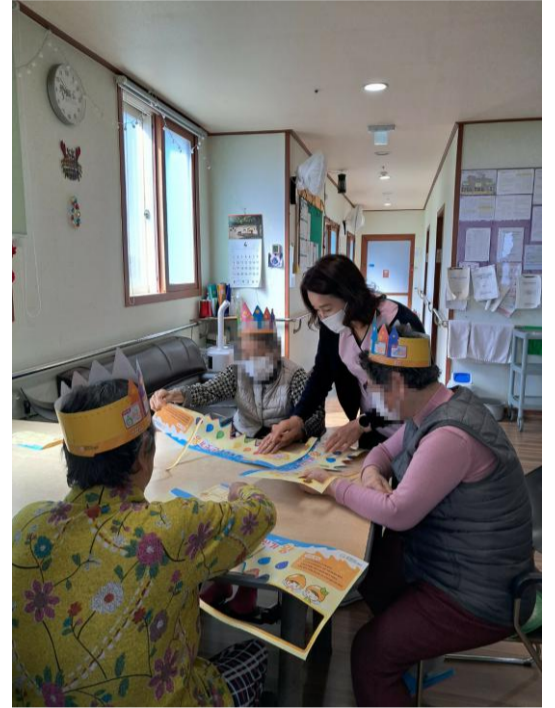
우도는 한번도 와보지 않았던 곳이었는데 뭔가 이끼리듯 아름다운 풍경에 반해 우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낯설고 타향살이라서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따뜻한 미소에 점차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21년 처음 이곳을 왔을 때 전 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로나19가 여기저기서 힘들게 하였지만, 원장님이 하 여러 선생님의 철저한 개인위생과 소독 등 3년을

무사히 넘어가고 있을 때쯤 코로나19로 두 분의 어르신이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다른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다시 힘을 내어 봅니다. 더욱더 철저한 개인위생과 소독 등 여러모로 애쓰고 있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 내 부모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선생님들과 협력하여 정성껏 모시고 있습니다. 저도 우도 주민으로서 부모님처럼 모시며 함께 할 겁니다.

요양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과 (건강 체조, 색종이로 직조 짜기, 퍼즐)과 관절이 아픈 어르신을 위한 다리 마사지기 핫팩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적응 잘 하시며 즐겁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집에서 모시기 힘든 어르신이 계시면 이러한 마음들을 믿어 주셔서 저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부모님처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뜻과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늘 함께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다. 오늘 하루도 어여쁜 어르신들이랑 즐겁게 생활해 보겠습니다.



●●● 영농정보

우도땅콩 신품종 '우도올레-1' 시범재배 준비 완료

10ha 시범재배용 종자 800kg 우도지역 보급...4월부터 파종
올레산 함량 100g당 40.2g, 재래종의 2.2배...건강기능성과 저장성 탁월



해풍을 맞고 자라는 우도땅콩은 작은 크기와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우도땅콩을 활용한 아이스크림, 커피, 제과, 막걸리 등이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우도관광 시 꼭 먹어야 할 명물로 자리 잡았다.

우도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농사가 수월치 않은 곳이지만, 땅콩은 덩굴성(포복성) 작물로 바람에 잘 견디며 재배가 확대됐다. 우도 전체 경작지의 35%인 144ha에서 연간 259톤이 생산된다. 그러나 30여 년

간 같은 품종을 재배하며 생산성이 떨어지는 종자 퇴화가 나타나 대체품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익)는 지난 2014년부터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과 협업을 통해 개발한 우도 맞춤형 신품종인 '우도올레-1'의 시범재배에 나선다.

'우도올레-1'은 재래땅콩의 작고 둥근 모양을 유지하며 식감이 부드럽고 맛은 더욱 고소하다. 더불어 보존기간을 늘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효과가 있는 올레산의 함량이 100g당 40.2g으로 재래종보

다 2.2배 많아 건강기능성과 저장성이 탁월하다. 산화안정성을 살펴본 실험에서도 산패까지 걸리는 시간이 재래종보다 약 8.1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도지역에서 현장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올해는 신품종의 안정 정착을 위해 10ha 시범재배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8일 우도에서 15개 농가를 대상으로 종자(피땅콩) 800kg을 보급했으며, 파종 적정기인 4~5월 파종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신품종 땅콩 '우도올레-1'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원종과 보급종을 생산·보급한다. 2024년에는 재배면적을 40ha로 늘리고 2025년까지 80ha를 추가해 총 120ha 재배를 목표로 삼고 있다.

고보성 발작물팀장은 "30여 년 가까이 재배해 온 재래종을 대체할 신품종 '우도올레-1'에 대한 농업인들의 기대가 크다"며 "올해 시범재배를 시작으로 면적을 점차 확대해 기존 재래종을 빠르게 대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편집부

●●● 김미희 작가와의 만남

우도가 나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한다. 어린 시절의 내가 거기 있었으므로



우도 영일동 출신 김미희 작가가 우도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하여 짧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김미희 작가는 200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동시로 등단해 청소년 시집, 동시집, 그림책, 동화 등 장르를 막론하고 현재까지 34권의 책을 펴내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자신을 소개해 주신다면?

반갑습니다. 시와 동화를 쓰는 달작 김미희입니다. 김미희라는 이름은 꽤 있어서요. 저의 닉네임인 '달작'을 앞에 붙입니다.

동화작가 지망생으로 동화를 습작하다가 우연히 동시로 신춘문예에 응모했는데 당선되어 뜻하지 않게 시인으로 불리게 되고 동시집을 연거푸 내면서 동시인으로 먼저 불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와 관련한 책들(동시집, 청소년시집, 시 창작 안내서 등)이 독자들에게 더 알려진 듯합니다. 그냥 몽똥그려 글을 쓰는 사람, '작가'라고 불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써온 작품들을 소개해 주신다면 주로 어떤 작품들이며, 또 앞으로 쓰고 싶은 글들은 어떤 것인지요?

제주인으로서 저의 정체성을 살려 쓴 제주 4.3 그림책 '동백꽃이 툭,' 이나 제주 해녀들의 삶을 다룬 그림책 '바다로 출근하는 여왕님'을 썼고요. '야, 제주다'는 제주 여행할 때 가족이 함께 읽으면 좋은 여행동시집입니다. 앞으로 어떤 글이 제게 올지, 어떤 이야기를 쓰게 될지 저도 잘 모릅니다. 내일 내게 올 문장을 설레며 기다립니다.

언제부터 문학 작가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나요?

6학년 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신현부 선생님께서 담임이셨는데요. 4월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제 자리로 오더니 속삭이는 겁니다. "미희야 네가 반 대표로 과학의 날 독후감을 써 와." 이 말이 저를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5학년 때까지 글 쓰기에는 재능도 관심도 없는 학생이었어요. 그런 제게 반 대표로 독후감을 써오라니. 선생님이 큰 실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책임감이 솟았습니다. 친구들은 공기놀이하고 축구하고 노느라 바쁜, 쉬는 시간과 종례 후에 집에도 안 가고 나는 우리들썩썩에 걸린 친구들의 독후감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독후감은 이렇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쓰는 거구나! 당시 우리 교실 구석에 200권(위인전과 명작 동화만으로 채워진) 남짓 있을까 한 그 작은 서고에서 과학의 날에 어울리는 한 권을 찾았습니다.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스티븐슨 이야기". 그 책으로 독후감을 썼습니다. 그 독후감으로 저는 우수상을 받았고 다음 달부터 월마다 열린 독후감 대회에서 빠짐없이 상을 탔습니다. 저는 책을 계속 읽게 되었고 글을 써 상을 타다 보니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여름방학에는 일기장에 동화도 썼습니다. 배추벌레가 주인공인 이야기인데 너무나 유치 찬란했지만 혼자 이야기를 짓는 게 재밌었습니다.

고향 우도는 작가님에게 어떠한 곳이며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요?

청소년 소설 '모모를 찾습니다'나 동화 '이야기 할머니의 모험'은 배경이 제가 나고 자란 우도입니다. 우도에서 맘껏 뛰놀았던 모든 것이 내 문학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우도는 '마음껏'이라는 수식어를 바치는데 주저함을 허락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마음껏 놀았던 것. 아동문학을 하는 제게는 천혜 자원의 혜택을 입은 거죠.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서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추억,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 것은 선별적으로 저만 받은 은총입니다.

우도가 나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내가 거기 있었으므로. '동심'이 자란

곳, '나의 동심적 상상력의 보고'가 바로 우도입니다.

요즘은 주력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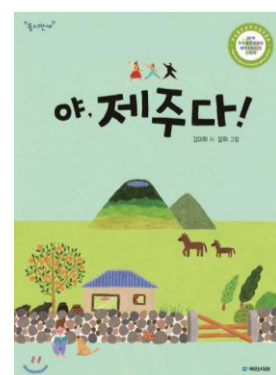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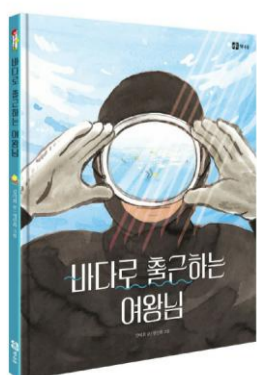
출간 책이 늘면서 작가 강연 요청이 많습니다. 초등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다양한 독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인들에게는 주로 시 창작 강연을 합니다. 시를 쓰고 시집 출간으로까지 이어지는 강의가 더러 있고요.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책 작가로서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만남 곳, 즉석에서 시를 쓰고 즉흥적으로 쓴 시에 제가 생각을 보태 일러줍니다. 아이들은 시인으로 세상에 온 것을 증명하듯 곧잘 시를 써냅니다. 동화책을 읽고 작가초청을 할 때는 해당 동화를 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게는 시의 시기, 산문의 시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연이 뜸해지는 겨울에 몰아서 동화나 산문을 쓰고 강연이 잦은 달에는 주로 시를 씁니다. 산문과 달리 시는 상대적으로 덜 앉아있어도 되니까요. 동화를 쓸 때는 동화 쓰는 것에만 온 신경을 모으고 시를 쓸 때는 모든 걸 시의 소재로, 시로의 표현을 고민합니다. 다양한 장르를 하게 되면서 저절로 터득한 비법이 아닌가 합니다.

작가를 꿈꾸는 혹은 꿈을 찾고 있는 우도의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SNS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누구나 글을 쓰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오디오북, 전자책을 비롯해 순식간에 똑딱, 어렵지 않게 책을 냅니다. 글이 가진 힘은 엄청납니다. 꼭 문학작품을 쓰지 않더라도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 상황을 글로 알릴 수도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특별함을 선물 받습니다. 비밀 일기를 쓰거나 이야기를 지어내 친구들에게 들려주세요. 생각만으로도 참 설레지 않나요?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선배가 열렬히 응원할게요. 책으로 만나요. 안녕.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글쓰기'라는 김미희 작가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김미희 작가의 우도 어린 시절이 담긴 책들이 마구 궁금해진다.

• 송희정 마을기자



우도병설유치원 직업 체험놀이

• 양정윤 우도병설유치원 교사

우도초병설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꿈과 다양한 경험을 위해 직업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봄에는 사육사 체험과 소방관체험 활동을 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아쿠아플라넷에 다녀온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공룡놀이, 동물원놀이를 즐기고 있어 사육사 체험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응급상황 발생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친구들에게 친숙한 소방관 체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사육사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만들기>

친구들이 사육사가 되어 동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환경과 동물들이 살기 좋은 동물원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제공해준 재료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클레이, 자연물 등을 더 추가하여 아름답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직업:소방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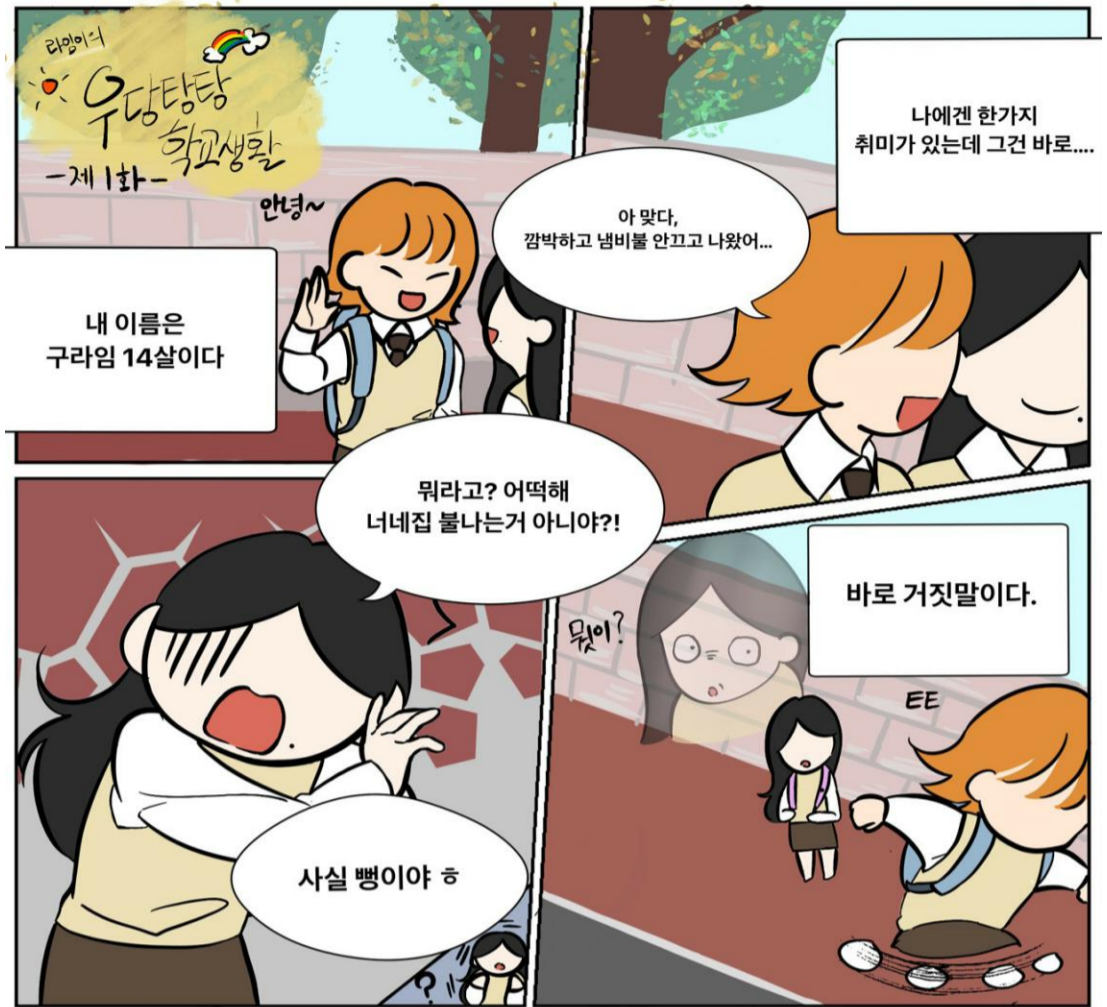
친구들이 직접 소방관이 되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해보았어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부터 대피하는 방법, 소화기를 이용한 불끄기 놀이까지! 처음에는 무섭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놀이를 통해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니 활동이 끝날때쯤 "커서 소방관이 되어 불이 나면 불꺼주고 숨안쉬면 심폐소생술 해줄꺼예요" 라고 말하는 해바라기반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임의 우당탕탕 학교 생활 제1화

2023년 봄호부터 김령경 학생기자가 <라임이의 우당탕탕 학교생활>을 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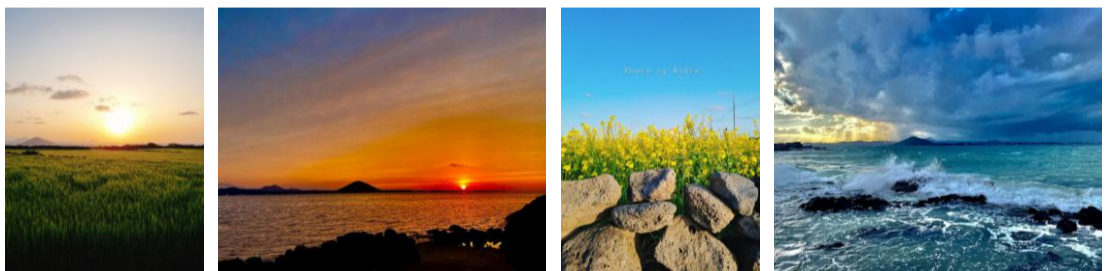
• 김령경 학생기자(우도중3)



우도중 사진반 동아리

<우도 사랑 학생 사진전>

• 박성중 우도중 교사



우도중학교(교장 이강식) 동아리 사진반 학생들의 <우도 사랑 학생 사진전>이 성산항 여객터미널 내에서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었다.

이번 <우도 사랑 학생 사진전>은 우도를 오고 가기 위해서 꼭 들러야 하는 성산항 여객터미널 내에서 진행됨으로써 우도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섬 속의 섬 아름다운 우도의 모습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21학년도부터 박성경 지도 교사에 의해 만들어진 사진반 동아리는 학생들 스스로 우리가 사는 우도 마을의 아름다운 풍광을 렌즈에 담아내는 활동에 열정을 쏟았다. 2년간의 사진 결과물들을 두 번의 사진 전시회를 통해서 우도 마을 주민들과 우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선보였다.

첫 번째 학생 사진전은, 이미 1월 초에 우도 마을 내에 있는 우도 창작 스튜디오에서 진행하였고, 두 번째 사진전은 성산항 여객터미널 내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우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일상이 어우러진 감성 그리고 학생들이 살고 있는 우도 마을에 대한 애착이 사진 작품 곳곳에 담겨있다.

박성경 지도 교사는 학생들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우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아름답고, 멋진 일상의 시선이 우도의 또 다른 매력을 더해주는 힐링 가득한 사진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도를 오고 가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선물 같은 사진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소감을 밝혔다.

성산항 여객터미널 내 <우도 사랑 학생 사진전>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전을 관람한 후 작성해 준 방명록에는, 뜻밖의 사진전에 초대해주어 감사하다, 우도는 최고로 멋진 섬이네요!, 우도의 가장 멋진 순간들을 마음에 품고 갑니다, 우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우도중 사진반 동아리를 통해 마음껏 즐겼습니다! 예쁜 제주 속에 더 예쁜 우도! 그리고 더더 예쁜 아이들의 마음! 싱그러운 그 마음 오래도록 간직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등 학생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와 작품을 감상한 소감이 적혀 있었다. 우도중학교 사진반 동아리 학생들이 내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며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나의 초등학교 졸업식



보니 내 눈앞에 우리 가족이 보였다.

드디어 입장. 우릴 반기는 박수 소리에 가슴이 벅찼다. 자리에 앉고 앞에 있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앞에 있는 화면에서는 우리 6학년 학생들의 3월부터 1월까지 사진들이 쭉 나왔다. 그 사진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 즐거운 6학년 생활을 한 것 같아 뿌듯했다. 사진이 나온 뒤 초등학교 동생들의 영상 편지가 나왔다. 나의 졸업을 축하해주는 이들이 많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편지를 읽어 드리는 시간이 왔다. 나는 천천히 편지를 읽다가 갑자기 북받쳐 오는 감정에 눈물을 흘렸다.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 하는 날에 나의 사랑 하는 가족들이 내 옆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마음을 다시 잡고 편지를 읽으려 하였지만 내 앞에 울고 있는 엄마, 아빠, 할머니를 보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나는 가족들을 꼭 안아 준 뒤 자리로 돌아왔다. 그렇게 졸업장을 받은 뒤 우리 반으로 올라갔다. 우리 반에는 미리 준비된 오승훈 선생님을 위한 우리들의 편지와 현수막이 있었다. 우린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오승훈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 오셨다. 오승훈 선생님이 들어 오자 나는 눈물이 났다. 어쩔 땐 많이 미운 선생님이었고, 어쩔 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선생님이었는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많이 아쉬웠다. 그래도 선생님과 마지막 날이니 뜻깊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여 눈물을 멈췄다. 선생님과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했다. 이제 진짜로 헤어질 시간이 되어 선생님과 나중에 또 만나자는 인사를 남기고 난 선생님과 헤어졌다.

나는 2023년 1월 5일 우도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나의 졸업 이야기를 써 보려고 한다.

초등학교 졸업이라 해서 유치원을 졸업 하는 것과 별다를 게 없다 생각했다. 또 난 우도초·중 학교를 떠나는 것이 아니니 전혀 슬프지 않을 것 같았다. 아침에 평소처럼 등교할 땐 내가 졸업한다는 것이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깨끗하게 치워진 우리 6학년 교실을 보니 조금씩 실감 나기 시작하였다. 졸업식 시간이 다가오자 웬지 모르게 조금씩 떨려 왔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 1층 안뜰갤러리로 내려가

이렇게 나의 졸업식은 마무리가 되었다. 나는 이제 초등학생이 아닌 중학생이기 때문에 더욱 성장한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기로 약속하였다.

• 박인서 학생기자(우도중1)

우도초중학교 입학식 열려

지난 3월 12일 우도초중학교에서는 2023학년도 입학식이 열렸다. 새 학기를 맞는 신입생은 유치원 9명, 초등 5명, 중등 8명으로 우도초중학교 전체 학생 수는 유치원생을 포함해 총 77명이 되었다. 이날 우도면연합청년회(회장 정민국)에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학생당 10만 원의 입학 준비금을 후원했다.



• 편집부

‘임봉순장학재단’,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 증서 전달



재단법인 임봉순 장학재단(이사장 고영주)은 2023학년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 증서를 전달했다. 대상자는 학부모나 자녀가 우도 초등학교나 우도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되며, 올해는 한은

빈, 고서운, 문경진, 임재형, 공나영 학생이 영예를 차지했다.

고영주 신임 이사장은 “고인이 된 임봉순 전 이사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우리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

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학업에 전념하여 지역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바램을 전했다.

이어 올해 부산대 예술대학 음악학과에 진학하는 한은빈 학생은 “성악을 전공하여 오페라 가수가 되어 좋은 공연활동을 하고 싶고, 기회가 되면 아버지의 고향인 우도에서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꼭 펼쳐보고 싶다”는 포부도 전했다.

고 임봉순 전 이사장은 우도 도항선 우도해운(주)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개별적인 장학활동을 펼쳐오다가 2016년 도항선에서 일했던 자신의 급여 3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매해 가족들이 출연하는 기금을 합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 편집부

●●● 우도야! 고치글라 함께 걷는 우도길

아무 기척도 없는 우도봉을 홀로 걷는다.



'조르왕 눈고망 걸으멍 간다'

"지들커 하러 가라"

어둠이 새벽 문지방을 넘는다. 단잠을 깨우는 목 소리에 어린 소녀는 반쯤 감은 눈을 비빈다. '새벽에 도채비 난다.' 하여 소녀에겐 매일 문밖을 나설 용기가 필요하다.

"아무리 경해도 그 새벽에 마썸?"

"경해도 조르왕 눈 고망 걸으멍 간다"

소녀는 아무 기척도 없는 우도봉을 매일 홀로 걷는다.

도채비 불이 날아드는 아침.

우도봉 담수장에 도착했다. 인기척에 놀란 새가 푸드덕 날아든다. 등대 위로 둥근달이 뜨면 저수지에 바람이 찾아와 곁 있는 아침을 맞는다. 소녀는 쇠말뚝을 찾는다. 그리고 큰 눈을 가진 어미 소 등에 기대어 도채비불이 하도에서 종달리 바다로 날아들 때까지 잠시 기다린다. 소는 큰 숨을 들쉴다 내쉬며 헹 헹 거릴 뿐 소녀를 해하지 않는다.

꽃샘입샘

새벽 공기가 차다. 소낭숲 나무 사이로 푸른 하늘이 열린다. 새소리는 맑고 선명하다. 개복숭이 연분홍꽃이 나뭇가지에 살포시 내려앉는다. 구부러진 길을 돌아 오르막길을 오르면 평안했던 호흡은 바빠진다. 앙상한 뽕나무 가지에 연두색 새잎이 돌아나고, 예덕 나무 끝에 털 송송 달린 붉은 잎은 불 빨간 소녀처럼 그 모습이 수줍다. 땅 옆으로 가시영경귀가 초록 머리를 풀어헤친다. 두세 번 호흡으로 언덕에 도착한다.

작은 섬머리 <망동산>

우도봉 북쪽, 특 솟아난 망동산은 망을 보던 곳. 종달리 지미봉과 대수산봉을 향해 봉화를 올렸다. 사

방이 막힘이 없어 작은 섬머리라 부른다. 이곳에서 먼 우도봉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그리고 수많은 오름이 눈앞에 있다. 뒤로는 영일동 마을과 푸른 바다가 안비양 넘어 수평선까지 이어진다. 셋보름(동풍)이 미세먼지를 밀어내고 시원한 공기가 콧구멍으로 들어와 답답했던 속이 확 트인다. 풍수레기(독수리) 놀던 곳에 나비 날아들고 망동산을 오르락내리락 미끄럼을 탄다.

순백의 하얀 꽃이 핀다.

산불감시 초소를 지나 조심조심 망동산을 내려온다. 장팔기가 순백의 하얀 꽃을 피운다. 나무 계단에 올라서면 머리 위로 탁 트인 하늘과 푸른 바다가 열리고, 짙레나무 가지에도 연두색 새잎이 돌아난다. 짙레순 하나를 따서 꺾질을 벗기고 조심스레 입안에 넣는다. 첫맛은 입에 달고 앞 쪽 끝 맛은 뚝은맛이 난다.

변신마왕 도채비꽃 사발꽃

우도봉 동쪽 능선 따라 걷는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왔다. 우도봉 수직 절벽을 오르락내리락 새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우도 가장 높은 곳, 우도봉 깎아지른 절벽 위에 하얀 등대가 우뚝 서 있다. 1906년 3월 1일 제주도 최초로 우도 등대가 불을 밝히고 백 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킨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등대 앞에는 수국이 활짝 피어난다. 우도 사람들은 이 꽃을 사발꽃이라 부른다.

여기저기 똥오름을 만든다.

우도봉에 천연 잔디가 푸르다. 어릴 적 우도 아이들은 도당 치기에 팔방 하며 어울렁 어울렁 우도봉에 간다. 쇠 목동이 아이들은 모여 놓고, 지들커 하러 간 소녀는 질 구덕에 담아온 전복껍데기로 젖은 소똥을 긁어모아 똥오름을 만든다. 그런 다음 바람에 말리기를 기다렸다 구덕에 담아 집으로 가져온다. 마당

에 보리짚을 깔아 켜켜이 쌓아두면 똥놀이 되고, 보릿짚에 산디짚을 섞어 겨울철 뜨끈뜨끈한 굴묵(난방)을 지핀다.

우도봉은 지상낙원

알오름에 보랏빛 제비꽃 하나 바람에 흔들린다. 땅을 향해 허리를 숙여 몸을 최대한 낮춘다. 봄이 오면 키 작은 제비꽃은 우도봉에 드넓게 피어난다. 구슬봉이에 꿀꽃이 피고, 쑥부쟁이 씀바귀 영경귀에 이어 마농꽃이 핀다. 셀 수 없이 들꽃이 피다 지다를 반복한다. 하지만 올해는 봄꽃이 생기를 잃었다. 네잎클러버는 보이지 않고 벌노랑이는 예전보다 소심하다 못해 듚성듬성 난다.

보물섬 우도봉에 예의를 갖추세요!

네발 달린 산악용 오토바이가 줄줄이 우도봉의 꽃들을 그대로 밟고 지나간다. 땅이 할퀴고 파여 붉은 속살이 다 드러난다. 달리는 기계음과 허공을 향해 질러대는 소리는 우도봉을 걷는 이에게 공포로 다가온다. 먹이를 구하러 숲에서 나온 흰뺨검둥오리 무리가 날카로운 기계 소리에 놀라 급히 달아난다. 우리에게겐 이 넓은 초원으로 인해 마음이 정화되고 순화되어 아름답고 행복했던 어린 추억이 있다.

바람아 불어라!

알오름 무덤 앞에 섰다. 현무암 돌비석에 새겨진 이름 석 자와 푸른 이끼가 백 년을 이야기한다. 무덤가에 노란 솜방망이 꽃이 피고, 비어있는 산소가 여기저기 눈에 띈다. 버려진 슬라브 개관이 한편에 널브러져 있다. 그 옛날 매일 우도봉을 홀로 오르던 소녀는 이제 여기에 없다. 잠잠하던 무덤가에 꽃샘바람이 불어와 잠자던 억새를 흔들어 깨운다. 바람아 불어라!

• 강윤희 마을기자

우도밥상

봄바람 불어오면 가시리 유채 된장국



햇살 받은 바닷돌(갯바위)에 또듯한(따뜻한) 봄이 옵니다. 바닷돌마다 손톱만 한 가시리 새순이 붉게 피어 오르면, 바람에 날아든 유채는 여리고 순한 초록 잎 뽕 내며 노란 꽃망울을 매단다.

바다에서 시작된 봄은 산과 들로 옮겨간다.

'세모가사리' 또는 '세모가시리'라고 불리는 붉은 해초를 우도에선 '가시리'라고 부른다. 가시리는 청정해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귀한 해초로 바다의 약초로 불리지만 우도에선 흔하게 볼 수 있다.

찬 바람 부는 1월부터 돌아난 가시리는 3~4월이면 손가락 두세 마디 길이로 자란다. 이때 가장 맛이 좋다. 옛날에는 가시리가 자랄 틈 없이 뜰어다 국을 끓여 먹었다. 지금이야 무침이나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로 만들어 먹지만 예전엔 주로 국으로 끓여 먹은 음식이다. 가시리는 오래 끓이지 않아야 오독오독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자칫 오래 끓이게 되면 끈적하고 미끈미끈한 점액질 때문에 국이 아니라 죽이 된다.

우도 사람이라면 어머니가 끓여준 가시리 된장국 맛을 모를 일 없다. 바닷길 갔다 오는 길 바닷돌에 돌은 가시리 한 줌 뜰어와 동지 나물이나 유채 나물을 넣어 푹푹하게 끓여 낸 가시리 된장국 한 사발은, 하루의 고단함을 든든히 채워주는 추억의 음식이다.

“옛날엔 가시리도 막 매어붙민 뽕게 어선계만은 이젠 안먹엄신고라 안메엄신계. 먹을 줄 알아도 안먹엄서. 이젠 입도 별나접신가 옛날 맛이 어서, 모든 게 옛날이 맛있어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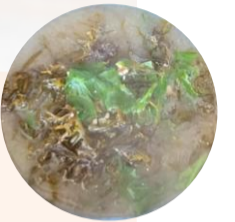
생글생글 웃는 미소가 봄꽃처럼 사랑스러운 주흥동 강복순 삼촌, 갓 아흔 고개를 넘었다. 얌전하게 가르마를 탄 파마머리엔 늘 예쁜 핀이 꽂혀 있다. 깔끔한 외모처럼 허투루 놓인 살림살이가 없다. 그을음 없이 윤이 나게 닦인 냄비, 차곡차곡 얹어진 그릇, 반짝반짝 빛이 나게 닦은 수저, 얌전히 놓인 화초, 모든 것이 반

듯하고 야무지다.

매서운 바닷바람과 거친 파도는 단단한 바닷돌에 붉은 가시리를 피워낸다. 고달픈 삶 속에서도 각별히 아내를 사랑했던 남편, 넉넉히 키우진 못했지만 엄마가 필요한 건 무엇이든 사다 주는 고마운 팔 남매, 삼촌의 가슴에 남편과 남매들은 바닷돌에 당당히 핀 가시리 일 것이다.

“삼촌 지금처럼 함박웃음 지으멍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서”

강복순 삼촌이 일러준 가시리 된장국 끓이는 법



1. 바닷돌에 돌아난 가시리를 뜬다.
2. 여러 번 씻어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된장을 물에 풀어 한소끔 끓인다.
(삼촌은 조개 다시다를 조금 넣으셨다. 삼촌들의 조개 다시다 사랑은 한결같다.)
4. 끓는 된장국에 우영에서 뜬 유채 나물을 먼저 넣고, 바글바글 끓으면 가시리를 넣는다.
5. 다진 마늘을 넣고 불을 끈 뒤 뚜껑을 덮어 뜸을 조금 들여준다.
(뜸을 들이면 가시리 식감이 부드러워진다. 이때 너무 오래 끓이면 죽이 된다.)

• 김애경 마을기자

놀명배우명

우도바다 학교에 입학하는 새내기 해녀학생들이 늘고 있다

우도에 봄이 오니 바다에서 삶을 캐는 해녀들 마음이 바쁘다. 우뚝가사리를 채취하기 전에 바다 밭 풀 캐기 작업을 마쳐야 되기 때문이다. 하우마을 바다 풀 캐기 작업에는 새내기 해녀들도 동원되었다. 기존 해녀의 고령화로 해녀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내기 해녀의 등장은 마을 어촌계를 들썩이게 한다. 대부분 열서너 살 때부터 물질을 배워 오늘에 이른 선배 해녀 세대들이 새내기 해녀들에게 물숨을 가르치고 해산물 채취 노하우를 전수하는 과정 속에 공동체의 끈끈한 정이 묻어난다.

경로 잔치 행사장은 물질 경험을 배우는 자리가 되고...

3일 연속 바다풀(팽생이 모자반등) 캐는 작업에 동참한 우 순희 새내기 해녀는 '물을 박차고 가르며 힘껏 수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잘 안되더라. 게다가 바다풀이 우겨져 시야 확보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숨을 참으며 풀을 베어나오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렇지만 물질은 재미있다'고 한다.

“야이 가르쳐 보난 혼 났져. 숨빌 때 힘껏 내려가야

되는데 수직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직선으로 나아가기만 허는거라. 뽕돌도 더 차고 해 봐도... 게난 본인도 힘들고.. 새네기가 쫄른 물숨으로 고동 주워 올라오는 것도 힘들디 풀까정 잘랑 오젠 허난게...”(하우목동 오금숙)

재미만이 알랑 배운 물질

“어릴 때 3월 보름 물지에 우미라도 해오민 어머니가 찍갈랑 나꺼랜 챙겨 주난 맛난 것도 사먹고 재미만이 알랑 물질 배우게 되더라. 경 허당 보난 18살에 남들 따라 육지물질까지 갔었다. 육지 바닷 물질은 소섬 물질과 다르다고 물질도 서툰데 못가게 하더라. 결국 딸의 고집을 못 꺾은 어머니가 ‘절대 몰알 욕심은 내지 말라. 물숨 아끼라. 그것만 조심하면 목숨 지킬 수 있다. 그 물숨 못 지켜 자꾸 사고가 나는 거라.’고 신신당부하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며 늘 멍심햄찌(김양순 서광리 어촌계장)”

해녀가 되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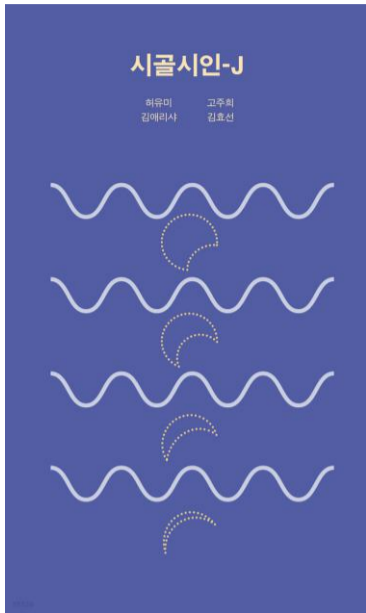
우도 12개동에는 마을회 정관 가입과 해녀회 가입

에 편차가 있다. 우선 마을회 정관에 가입 후 해녀회에 가입하면 물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해녀회 가입시 동마다 정해진 규칙과 관례에 따라 일정금액의 비용을 부담하기도 한다. 하우목동의 경우 마을회에 가입만 하면 마을 공동어장에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덕분에 5년 이내 하우마을 새내기 해녀 수는 6명이나 늘었다. 최근 서천진동 새내기 해녀 수도 4명이 늘었다. 자연히 어촌계원도 늘어나 공동체에도 힘이 실린다. 선배 해녀들은 새내기 해녀들의 태악이나 물질 장비들이 안전한지 부족하지는 않은지 챙겨 주고 찢어진 고무옷을 붙여준다. 바다 속 잠수가 처음인 새내기 해녀들에게 우뚝가사리가 많은 곳을 양보하고 빈약한 망사리에 자신이 채취한 것을 보태준다. 바다밭에 아무리 해산물이 많아도 같이 숨비는 동료해녀가 있어야 서로의 안전을 살피며 조업도 가능한 것이다. 먼 훗날 새내기 해녀들이 선배 해녀 세대에게 배우고 깨달아 전승받은 해녀 문화유산 그대로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우도바다 학교에 응원을 보낸다.

• 이승희 마을기자

책소개

시골시인-J



작가_허유미, 고주희, 김애리사, 김효선
출판사_걷는사람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섬에 있는 조그만 책방의 책들 사이로 바람이 불어 옵니다. 어제 오늘이 다르고, 매 계절이 다른 바람은 각기 다른 매력이 있지만 가장 설레는건 '봄'이에요. 한겨울 책 위로 내려 앉았던 먼지들이 반짝인다면 그건 바로 '봄'이에요. 겨우내 움츠러 들었던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지면서 활짝 피어날 준비를 합니다.

지금, 봄의 가장자리에 들어설 즈음 바다에서 떠 내려온 유목처럼 <시골시인-J>을 만났습니다. 이 책

은 네 명의 시인이 이어달리기를 통해 완성된 시집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이 한없이 밀려오고 쓸려 가는 곳- 파도에 섞인 포말 빛 눈물이 쉽없이 쏟아지는 곳- 청량하고 외로운 섬을 살아가는 시인들의 이야기.

네 명의 여성 시인들이 각자 자기만의 방에서 길어 올린 시간을 조심스레 꺼내어 놓습니다.

섬에서 방황하며 잃어버린 시간들. 섬이 주는 자유와 구속의 굴레. 그 속에서 생성되는 끝없는 고뇌와 번민은 시인 각각의 내면을 오롯이 드러내면서도 결국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를 보듬어 주고 있습니다.

시인들의 글을 읽으면 제주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우도의 늙은 해녀들이 말하는 '마파람'을 꼭 닮았던 생각이 듭니다. 겨우내 얼었던 대지 위에 봄을 실어나르는 부드럽고도 매우 섬세한 바람이에요. 저 멀리 바다를 건너 제주의 바람이 된 문장은 섬의 외로움을 가득 끌어 안아주고, 시린 마음을 뜨겁게 위로해 줍니다.

허유미, 고주희, 김애리사, 김효선 네 명의 시인들이 보내온 시에 기꺼이 마음을 다해 출렁이고 싶습니다.

•밤수지맨드라미 책방지기

제주어 한마디

덤방하다

잡초 따위가 무성하다

삼춘 : 아이고, 아이네 발이 검질이 덤방해그 냉 어명할거니

(아이고, 너네 발에 잡초가 무성해서 어떡할거야?)

춘미 : 삼춘, 이거 검질 아니마썸, 봄이라부난 곱닥하게 꽃핀거 막 곱지안허우파?

(삼춘, 이거 잡초 아니예요, 봄이라서 예쁘게 꽃핀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삼춘 : 히허떡헌 소리말앙 검질 매라, 날 뜻뜻 해가문 더 덤방해그냉 매기도 힘들어

(이상한 소리하지 말고 잡초 뽑아, 따뜻해지면 더 무성해져서 뽑기도 힘들어.)

춘미 : 알아수다. 삼춘 걱정해지 마썸. 더 덤방해기전에 검질매크다

(알았어요. 삼춘 걱정 하지마세요. 더 무성해지기 전에 뽑을거예요.)

•백송미 마을기자

설레는 도서관 첫 나들이

•송희정(우도작은도서관 사서)



지난 3월 13일 우도작은도서관(관장 고영주) 회원들은 다른 도서관의 운영을 보고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배우기위해 도내 도서관 투어를 진행했다. 오전에 출발해서 봉아름작은도서관과 꿈바당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일정이다. 우도작은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해 갈 수 있을까? 다른 지역 도서관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도서관팀들과 함께하는 첫 나들이라 행복하고 설레었다. 아침부터 풍랑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아 마음만 조리다 다행히 8시에 뱃길이 열렸다가에 특급 작전처럼 배를 타

고 일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

첫 방문은 오전10시 봉아름작은도서관을 방문했다. 양성훈관장님과 변경미 사서선생님께 작은도서관 운영과 열정적인 활동에 대해 들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차곡차곡 챙기고 되새김하였다. 점심을 먹고 2시에는 꿈바당어린이도서관을 방문했다. 제주도지사 공관으로 쓰이다 도서관이 된 꿈바당어린이도서관은 신기하고 재미있었고 꿈차롱작은도서관을 일궈 온 양민숙선생님의 경험담은 도서관 활동에 대한 공감과 짝찬 감동을 안겨주었다.

봉아름작은도서관, 꿈바당어린이도서관 관계자분들 모두 귀한 시간 내어주고 환대해 주어 너무나 감사했다. 궁금증도 풀고 운영 노하우도 배운데다가 큰 인연을 만들고 돌아왔다. 우도작은도서관을 지켜오신 어른들과 젊은 활동가들이 한마음이 되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더욱 보람찬 시간이었다. 그리고 도서관을 움직이는 힘은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정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이번 도서관 나들이를 통해 우도작은도서관도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을 믿는다.

포토에세이

청보리밭

“보리는 가물어서 잘된다. 4월에 선들선들한 셋보름(동풍)이 불어야 보리가 잘 요문다(여문다).
마보름(남풍) 불민 보리가 허영허게 밟아서 욘지 않허여”
이 바람이 우리를 춤추게한다.



•사진 강윤희/구술 김춘산(86세, 동천진동)

신간소식

바당 없으면 못 살주

강영수 시인의 여덟번째 시집 <바당 없으면 못 살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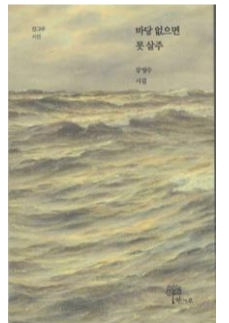
6부에 걸쳐 70편의 시를 실었다.

1부에서는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해, 개발주의에 무너져가는 환경에 대해 성찰한 시들이 담겨 있다. 2부는 시인의 아내를 비롯한 우도 해녀들의 삶을 투영한 시들이다. 험하고 지난한 삶의 삶에서 남편도 자식도 데려간 바다이지만, 그래도 바다가 없으면 못 산다는 해녀 할망의 이야기가 표제

가 되었다. 3부는 황혼에 접어든 삶을 돌아보며 노년의 애환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4부와 5부는 일상에서 건져올린 시심(詩心)과 시인으로서의 다짐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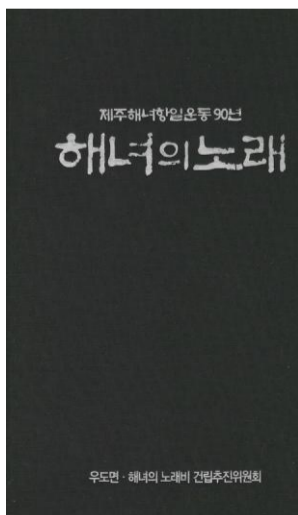
6부는 산문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시인의 고향이자 지금까지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우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도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남아 있던 예전 모습을 반추하면서 유년 시절의 추억을 소환하기도 하고, 상례 혼례 명절 등 이웃과 함께했던 옛 모습을 떠올리기도 한다. 또한 작은도서관과 북카페, 마을

신문 등 지금의 우도를 그리면서, 우도가 개발주의의 쇠밭톱에 상처받지 않기를 소망하고, 아름다운 우도와 그 속의 삶을 모두가 함께 오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한그루, 10,000원)



• 편집부

제주해녀항일운동 90년 해녀의 노래



지난 해 12월 1일 우도면(면장 강선호)과 해녀의 노래비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고흥범)는 제주 해녀 항일운동 90주년을 맞아 우도 해녀항일운동과 고(故) 강관순 애국지사의 항일운동을 기리는 ‘해녀의 노

래비’ 건립(관련 본지 제16호 4면 기사)에 이어 ‘제주 해녀항일운동 90년 해녀의 노래’를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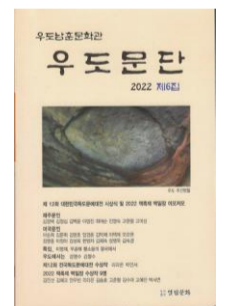
이 책에는 강관순 지사 기록자료, 노래비 준공식 자료를 사진으로 수록하고 제1장 제주해녀 항일운동의 개요(박찬식 박사), 제2장 노래의 힘 ‘해녀항쟁가’(문효진), 제3장 강관순의 일생(김순두), 제4장 강관순의 딸 강길여의 딸의 대담(허영선), 제5장 재판기록(국가기록원), 제6장 독립유공자신청서(보훈처) 등을 수록했다.

각계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들로 꾸려진 13명의 추진위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를 포함한 6명의 자문위원단, 각각 6명의 집필위원과 편집위원이 참여 하였다. 특히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구전돼오던 해녀의 노래 가사를 우도에 전해지는 강관순 지사의 가사를 기준으로 통일시켜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크리아아트디자인, 비매품)

• 편집부

우도문단 제6집

우도남훈문학관(관장 고미선)은 지난해 12월 문집 우도문단 6집을 출간했다. 문집에는 강영수, 김철수 작가를 비롯해 제주문인, 미주문인의 작품을 수록했다. 그리고 우도초·중학교(교장 이강식) 학생들의 제12회 독도 문예수상작과 2022년 책축제 백일장 수상작과 참여작도 실었다.



우도남훈문학관은 미주에서 활동하던 故전달문 시인의 도서기증 등 우도와의 인연을 시작으로 2013년 하우목향에 시비가 세워진 후 2016년 단체등록 하였다. 현재 우도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철수)의 지원으로 우도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문학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도서출판 열림문화, 12,000원)

• 편집부

●●● 여행자기고

몸으로 사는 삶

●박나교(대구광역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다.

지인이 한 달 우도 살이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녁 비행기로 제주에 갔다. 제주에서 일박하고 다음 날 우도행 배를 탔다.

십 수년 학원을 운영하다 코로나로 접고 새로운 일 자리를 구했다. 몸에 병이 생겨 수시로 아픈 나는 고 정적으로 메여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 내 형편에 맞는 일자리가 카드 영업이었다. 처음 몇 달간은 형제자매, 가까운 지인들의 도움으로 편하게 마감할 수 있었다. 사실 반강제로 밀어부친 적이 허다했고 자신 만만했다.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친밀감이 덜한 이들에게 카드 발급을 권유했다 거절 당하는 일이 자주 생겼고 그때 마다 밥벌이로 이일을해야만 하는 내 처지가 서글펐다. 아직 공부를 마치지 못한 딸이 있고 코로나로 진

빛도 매달 갇아야 했다. 남편은 일자리를 구해 경기도로 올라갔고 아이들은 모두 타지역에서 생활해 난 혼자 지냈다. 지인 영업이 안되니 개척 영업을 나갔는데 생전 처음 가게문을 열고 들어가 카드발급을 하라는 일이 쉽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긴 하는데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나오기 바빴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허탕치는 날의 연속이었고 매일 아침 눈 뜨는게 점점 싫어졌다. 하지만 마감을 못해 아픈데도 진통제를 먹고 영업을 나가야만 했다. 이 나이에 힘들다고 누구에게 칭얼대는게 싫어 혼자 꾀꾀 참다 친구와 술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다. 친구가 많이 놀랬다. 늦은밤 자다 깨 다시 잠들지 못하면 아픈 몸과 내가 해야 할 마감을 생각하며 또 혼자 울었다.

힘든 시간들이 천천히 지나갈 즈음 우도에 갔다. 지칠대로 지친 나는 누구와도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지인들과도 대화를 길게 나누지 않았다. 혼자만의 섬에 나를 가두고 마음의 문을 닫았다. 만사가 귀찮고 내 삶이 하찮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배도 운행을 멈춘날이었다. 바닷바람은 그냥 서있기도 힘들게 강했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뭘야 이 날씨에 물질을 한다고?’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간 해녀들을 보며 뒷통수를 쇠망치로 한대 맞은 기분이 들었다. 슬픔은 더 큰 슬픔으로 위로받듯 나는 해녀들의 물질을 보며 내 삶을

돌아봤다. 행동하기 전에 지레짐작으로 안될것을 먼저 예상해 주저앉고 이것저것 핑계거리를 만들어 도망갈 궁리만했다. 솔직히 내가 하는 일이 거절당하는 일이고 그걸 문제 삼는다면 하지 말아야되는 일인 것이다. 해줄거라 믿었던 사람이 거절했다고 힘들어 하는 것도 어찌보면 이상한 일이다. 내가 그에게 권유하는 것은 내 마음이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거절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다. 내가 권유할 자유가 있듯 그들에게는 거절한 자유가 있음을 잊은 내 착각이 문제였다.

삶에서 받은 상처는 타인의 삶을 보며 치유된다. 머리로만 살던 나를 몸으로 살라고 해녀들이 알려주신다. 몸으로 사는 삶은 부딪치고 배우고 고쳐나가는 삶이다. 생각이 바뀌자 마음은 훨씬 가볍고 용기가 불쑥 나온다.

달린 마음이 열리자 내 앞 넘실거리는 바다의 고운 빛깔에 나도 모르게 감탄이 나온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으니 이 아름다운 바다를 보지 않냐고 파도들이 내 가슴에 찡찡거리며 속삭인다. 그래, 살아있는 자체만으로 행복하다는 걸 우도가 온몸으로 가르쳐 준다.

참 고마운 우도

안녕 다시 올게

우도초등학교, 소통하는 학교, 협력하는 학부모!

2023년 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부모총회, 새학년 학부모교실 운영



2023학년도 교육과정 설명회(사진 좌)/ 새학년 학부모 교실(사진 우)

우도초·중학교(교장 이강식)는 2023년 3월22일(수) 오후 7시부터 시청각실에서 우도초·중학교 학부모님들과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학년도 교육과정설명회와 학부모총회, 초·중학교 새학년 학부모교실을 운영하였다.

곳은 날씨에도 참석한 학부모와 교직원은 제주형 자율학교, 자유학기제, 청렴교육을 비롯한 2023학년도 우도초·중학교 통합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2023학년도 학부모총회가 진행되어 임원선출,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학부모총회에 이어 초·중학교 각 교실에서는 담임선생님과 함께 학급교육활동, 특색활동, 생활지도 등에 대하여 대화하는 새학년 학부모교실이 연이어 운영되어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편집부

우도 비양동 공동체 바다

안비양 몸(모자반) 공동작업하는 날



해마다 정월이면 비양동 마을회는 안비양(비양도)에서 몸 공동작업을 한다. 갯바위에서 자라는 톳과는 달리, 해녀들이 바다에서 캐는 몸(모자반)은 말 그대로 귀한 몸이다. 우도의 유일한 군락지인 안비양 몸은 일 년에 한 두 번만 작업하기 때문에 사전에 주문예약을 받는다. 해녀들이 부지런히 숨비며 몸을 망사리에 채운다. 물으로 올려진 몸은 할머니들의 선별작업을 거쳐 남자들이 마대에 담고 무게를 잰다. “비가 가물언 몸이 자라지 못했쨌” 올해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확으로 주문량을 맞추지 못해 아쉽다. 그래도 안비양 바다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 강윤희 마을기자

2023년 섬마을 소식

2023년 1월

- 1/1 우도면·이장단협의회·유기관단체장 신년맞이 총흔모지 참배
- 1/5 우도초·중학교(교장 이강식) 2022학년도 유·초·중 졸업식 개최
- 1/17 우도중학교총동문회(회장 김광국)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
- 1/29 환경봉사 동아리 우도등대(회장 강은주) 우도좁길 환경봉사 활동(비양동 해변)

2023년 2월

- 2/2 하우목동 해녀회(회장 고운임) 신과세제 마을당굿 열림
- 2/3~3/2 우도중학교 사진반동아리 우도사랑 학생사진전 개최
- 2/4~7 영일동마을회(동장 김종훈) 마을포제 봉행
- 2/5~8 천진리마을회(이장 고광환) 마을포제 봉행
- 2/7 강병삼 제주시장 우도면 연두방문
- 2/10 4개리 마을회 경로잔치 개최
- 2/16 우도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양남) 우도살롱 소규모요양원 이용 어르신을 위한 난방비 지원
- 2/23 바르게살기 우도면위원회(위원장 김성도) 우도살롱 소규모요양원 이용 어르신을 위한 물품 지원
- 2/25 우도초총동문회(회장 채종익) 2022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 개최
- 2/26 환경봉사 동아리 우도등대(회장 강은주) 우도좁길 환경봉사 활동(전흘동 해변)

2023년 3월

- 3/2 우도초중학교(교장 이강식) 2023학년도 유·초·중 입학식 개최
- 3/8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 실시
- 3/19 환경봉사 동아리 우도등대(회장 강은주), 우도다이브 봉사단(회장 강승협) 수중 및 해양 정화 활동 실시(서천진동 포구)



우도면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일 시: 2023년 6월 3일(토) 오전 10시(※우천시 익일)
장 소: 우도면체육관

주 최: 제주도 우도면
주 관: (사)대한노인회 제주지회 우도면분회
참가팀: 제주도 지역 16개팀
문 의: 추진위원장 김성도(010-2711-0243)
총무 (윤립) 김상봉(010-5693-9940)

(사)대한노인회제주지회 우도면 분회장 고재보
대 회 주 진 위 원 회 위원장 김성도
우 도 게 이 트 볼 협 령 회 장 이창훈

우도마을신문 달그리안의 지면은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수시로 독자 및 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지 기사 내용에 대한 반론이나 의견 등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르더라도 독자여러분들의 익명을 보장하여 실어드립니다. 행정정보, 출향면민, 동호회 소식, 경조사 등 공익이나 공공성 정보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 **마을기자** 마을 소식을 찾아 기록하고 전달
- **독자참여** 자유주제, 여행기, 사진, 영상, 문학작품 등 기고(A4 1매 이내/글 크기 12point/ 줄 간격 160%)
- **보내실 곳** 메일 udo_dalgrian@naver.com / 우편 제주도 제주시 우도면 하우목길 9-1번지(63365)
- **참여 문의** 010-2696-0441/ 010-4732-0075

2023년 상반기 우도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2023 상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중 켈리와케어커쳐 프로그램/사진 우도면

우도면(면장 김재중)과 우도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지난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주민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3년 상반기 우도면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한국화&POP교실, 켈리와케어커쳐, 풍물교

실, 성인줄넘기&태권도교실, 한국화 & POP글씨, 배드민턴, 제빵교실, 노래교실, 실속 홈패션 등 8개 분야로 6월 30일(금)까지 13주간 우도면 생활문화센터 및 김진사갤러리 등에서 운영된다.

• 편집부

프로그램명 (강사)	요일	시간	장 소
켈리와케어커쳐 (김성근)	화	18:00~22:00	생활문화센터 1층
풍물교실 (김옥)	월	18:00~22:00	생활문화센터 1층
성인줄넘기&태권도교실 (김창범)	월,목	20:00~22:00	우도태권도장
한국화&POP글씨 (김정순)	목	18:00~22:00	김진사갤러리
배드민턴강좌 (유진오)	화,목	20:00~22:00	우도체육관
제빵교실 (김순선)	화	18:00~22:00	주흥동소채 카페(풍당)
노래교실 (이경철)	수	18:00~22:00	생활문화센터 1층
실속 홈패션 (김배현)	목	18:00~22:00	생활문화센터 1층

우도지역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RFID) 설치운영



제주시는 추자·우도지역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RFID) 80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월말로 사업비 1억4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자 44대, 우도 36대(18개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제주시 전 지역에 음식물류폐기물종량기(RFID) 설치를 완료하게 되었다.

음식물류폐기물종량기(RFID)는 종량기에 배출 무게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봉투배출 방식에 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효과적이며 도시미관 향상과 배출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은 “종량기 배출방식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자·우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편집부

주민과 독자여러분의참여를기다립니다

우도마을신문은 제주 우도(牛島)의 마을공동체 문화를 계승하고자 합니다. 섬마을의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기록하며 지속가능한 아름다운 우도의 미래를 꿈꿉니다. 우도마을신문은 계간지로서 독자와 후원인의 도움으로 제작되어 지역주민 및 출향 면민회에 무료 발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 기다립니다.

※제주 인터넷언론사인 제주투데이(http://www.ijejutoday.com)를 통해 본지의 창간호부터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도마을신문 활동

- 우도섬마을생활사아카이브02 그뻐 경허명살아수다 물 길러 가는 길, 우도엠펙 제작
- 제주영상문화진흥원 2023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활동형 단체) 선정
- 제12회 우도소라축제 행사장내 우도마을신문 활동 홍보부스 운영(4/14-16)



알림 / 인사 / 경조

- 김재중 우도면장 취임
- 김현민(우도초 35회) JDC경경기획 본부장 ·세화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취임
- 고성균(서천진동)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장 취임
- 윤우석(윤영유·양길순 자) 제주대학교 해양지질학 박사학위 취득
- 강인한(강문중·김영희 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임용
- 우현준(우동훈·고은숙 자) 원광대학교 한의학 박사 및 한의학 재활 전문의 취득
- 윤순열(우도여성의용소방대 지도부장) KBS 119상 본상(공로상) 수상
- 박용순 제주동부경찰서 우도파출소장취임
- 강효민 서울우도면민회장 취임
- 김광국(전홍동) 우도초중학교 운영위원장 취임
- 김철수(중앙동) 제11기 우도면주민자치위원장 취임
- 고성중(주홍동) 우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취임
- 김경학(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2023 대한민국 의정대상 평판 대상 수상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구좌농협협동조합장 윤민, 제주시수협 조합장 김경필 당선
- 제57회 도민체전 태권도 남중부 고형민(은), 윤혁빈(동), 리라은(동), 김세준(동)
- 김승민(영일동) 구좌협우도지점장 취임

우도주요생활정보

- 우도면사무소 민원실 064-728-1527
- 천진리사무소 064-783-0569
- 서광리사무소 064-783-0044
- 오봉리사무소 064-783-0568
- 조일리사무소 064-783-0570
- 우도초·중학교 행정실 064-786-4500
- 우도파출소 064-783-0112
- 우도보건지소 064-728-1518
- 우도119지역센터 064-782-1119
- 예비군우도면대 064-784-5113
- 제주시수협 우도출장소 064-783-0010
- 구좌농협 우도지점 064-783-0008
- 우도우체국 064-783-0001
- 우도항로표지관리소 064-783-0180
- 우도전력서비스센터 064-783-0308
- 우도경로당 064-783-3088
- 오봉리경로당 064-783-1070
- 조일리경로당 064-783-9970
- 우도지역아동센터 064-782-4090
- 금강사 064-783-0375
- 제주교구 성산포성당 우도공소 064-783-0631
- 우도살롱스튜디오요양시설 064-784-4091
- 우도교회 064-783-0006
- 우도제일교회 064-782-5520
- 우도공업사 064-783-1818
- 우도종합물건재 064-783-0500
- 우도가스 064-782-6000
- 우리종합가스 064-783-0402
- 우도효도차 탑승 064-784-8281
- 구좌농협우도주유소 064-783-4040
- 구좌농협하나로마트 우도점 064-783-9719
- 그린마트(의약품 취급소) 064-784-2672
- 우도관광 064-782-5080
- 천진리 여초계 010-3694-0666
- 서광리 여초계 010-2802-0193
- 오봉리 여초계 010-8662-0371, 064)783-0371
- 조일리 여초계 010-3639-0167, 064)783-0167
- 우도작은도서관 010-7551-8251
- 우도어린이집 064-783-2235
- 우도인력사무소 010-6755-8106

후원해주셔서감사합니다

- 2018 고영주 고훈일 김병현 (주)대은계천
- 2019 강계원 강무송 강문홍 강세봉 강세정 강승일 강영수 고민구 고봉석 고봉준 고영주 고창윤 고희순 김금현 김대환 김법진 김상용 김성진 김안녀 김양순 김영성 김우정 김지영 김진민 김창숙 도은종합건설 마리엔윌정 박우철 박지영 서울우도면민회 성정일 송정아 신광현 안비양청년회 양승권 양승호 여찬현 우도기타동아리 우도바라기 우도살레 우도장날 우도초중49-34동창회 우승수 우승완 우승혁 우윤필 윤석만 윤소남 윤영유 윤용 윤원우 윤정용 윤철민 이기우 이명식 이정희 정수진 조은영 채인배 한두영 한승규 현종호
- 2020 강광일 강무송 강병호 강승일 강영수 고덕현 고민구 고봉준 고봉호 고성균 고성환 고영주 고영호 고영희 고응욱 고정길 고희순 고희진 공성신 광민아 구좌농협 김광민 김광석 김도균 김문형 김병기 김병현 김선민 김성진 김수열 김수진 김양언 김우정 김윤홍 김종

- 국 김진민 김진복 김혜숙 로라진주 마리엔윌 정 문기석 복여네왕돈까스 부태만 송정아 안비양청년회 양계영 양성집 양형철 양희범 여관용 여중섭 여찬현 율레전기차 우광술 우도바라기 우도살레 우도상회 우도초중49-34동창회 우영훈 우월심 윤석만 윤소남 윤영유 윤재관 윤희진 이기우 이장단협의회 전기숙 전승만 정문환 정영철 정현우 (주)심종합건설 한인숙 홍중수 황동철
- 2021 강문수 강승일 강승협 강영수 고덕현 고봉석 고봉준 고영주 고용숙 고충석 광민아 구좌농협 김설미 김세양 김수진 김영순 김진민 김철봉 김현숙 김형진 박준철 백광현 별꽃차 서승완 성현주식회사 송정아 안비양청년회 양성집 여초계장단협의회 여성훈 여승현 오윤실 우도태권도장 우도해운(주) 우승완 윤문유 윤소남 윤현정 이순형 이스크라21 이호문 전기숙 정문환 정미라 (주)우로랜드 (주)우림해운 (주)제주착한여행 진순덕 채인배 최성 허

- 주훈 황동철
- 2022 강무송 강병호 강승일 강영수 고경란 고덕현 고민구 고영주 고충석 광민아 구좌농협 김병기 김설미 김세현 김수진 김양순 김일영 김창범 김태민 김현숙 김희민 문봉순 문효진 방승영 백광현 보요요펜션 부산우도면민회 서울제주도민회 서승완 안비양청년회 안성관 양성집 양형철 여중섭 율레스쿠터 윤원우 이상우 이순형 이안태 이현철 장혜영 전기숙 장승만 정미라 정문환 정수진 한인숙 홍성표 황동철 황승철
- 2023 강봉수 강승일 강영수 고덕현 고봉석 고봉준 고영주 고충석 고희순 광민아 김병기 김설미 김세현 김안녀 김양순 김용민 김일영 김진복 김창범 김현숙 문봉순 백광현 서승완 양성집 양정식 우도인력사무소 우도3419동창회 윤석만 윤용 윤희진 장혜영 전기숙 홍성표 황승철

우도 마을신문 달그리안

발행 우도마을신문(제주바-01039)
 발행인 김영진
 편집인 강계현, 강윤희, 김애경, 사윤수, 송희정, 이승희
 디자인 디자인누리

udo_dalgrian@naver.com
 Facebook.com/dalgrian
 udo_dalgrian

우도마을버스운행정보

해안길 순환 버스 및 마을안길 순환버스 노선과 시간표는 계절별, 기상 특보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업체 또는 매표소에 문의, 확인 바랍니다.

- 우도사랑협동조합(마을버스) 064-782-2626

우도도항선 운행정보

우도도항선(3사) 노선과 시간표는 기상상태, 항구 사정 등으로 시간 및 항구 변경 등이 있으니 업체 또는 대합실 매표소에 문의, 확인 바랍니다.

- 천진항대합실 064-783-0448
- 하우목항대합실 064-782-7730
- 성산항대합실 064-782-5671
- 종달항대합실 064-782-7719
- 성산항관광안내센터 064-782-8860

후원 및 구독문의

농협 351-1045-5273-33 우도마을신문
전화 010-2696-0441

우도마을신문달그리안 모바일뱅킹으로정기후원하기

- 1 주거래은행 앱 열기
- 2 이체/출금 자동이체
- 3 이체신청관리
- 4 자동이체 등록
- 5 달그리안 후원계좌 입력
농협 우도마을신문 351-1045-5273-33
- 6 이체금액/ 이체일 지정
- 7 신청

※이 신문은 2023 우도면주민참여예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